

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개정 발간

-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제5판 전면 개정·배포
- QR코드 하나로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최신화하여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제5판을 발간 한다(7.24.).



[그림 1]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

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검사하는 의료기관, 지자체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실무 지침으로, 감염병별 검사방법, 검체 채취·관리, 검사 절차 및 결과 판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.

이번 개정판은 신규 법정감염병인 ‘칸디다 오리스 감염증’의 진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최신 진단검사 기준을 반영(붙임 1 참고)하고,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대한임상미생물학회,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소속 민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침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.

아울러 현장에서 지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등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시 필요한 정보(검사기관, 연락처, 검체 기준 등)를 요약한 별책을 함께 배포하며,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한다.



[그림 2]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제5판 QR코드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이번 지침 QR코드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제5판(본책, 별책)과 QR코드는 7월 24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인쇄본은 7월 말까지 공공검사기관,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.

- * ① 질병관리청(<https://www.kdca.go.kr>) > 알림·자료 > 법령·지침·서식 > 지침
 ② 감염병포털(<https://dportal.kdca.go.kr>) > 감염병정보(법정감염병) > 감염병지침

- <붙임> 1.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제5판 주요 개정 사항
 2. 「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」 제5판 이미지

담당 부서	진단분석국 진단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재선	(043-719-7840)
		담당자	연구관	김지경	(043-719-7845)
			연구사	박옥규	(043-719-7848)

개정 주요 내용

- ① 법정감염병 항목 추가됨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신설
- ② 영문 감염병명 국제 표준명 기준으로 현행화
- ③ 검체정보(처리용기, 채취시기 등) 개정
 - **(처리용기)** 감염병별 항응고제 사용 기준 정립
 - **(검체채취)** 바이러스 배출 시기에 따른 검체채취 시기 상세 안내
- ④ 최신 정보 반영
 - **(검사법)** 신종감염병증후군 분석을 위한 세부검사법 추가, 허가시약 확대 등 에 따른 검사법 최신화
 - **(감별검사)**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례 등 안내
 - **(검사기관)** 제1급 감염병 확진체계 변경 및 최신 기술이전 반영 현행화
 - **(참고문헌)** 진단검사에 필요한 최신 참고문헌 정보 반영

본책



본책

별책

